Stage 11 Bertha's Secret Battle

Cover Note & 본문 번역

Cover Note	
About this Book **(책에 대하여)**	- 거대한 버다는 레슬링장에서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싫증이 났어요. 그리고 그녀의 맞수, 정정당당 피오나와 역할을 바꾸고 싶어해요.
Talking Points **(이야기해 볼 부분)**	- 앞표지를 보고 제목을 함께 읽으세요. 뒤표지의 글을 읽고 아이에게 무슨 이야기일지 물어보세요. - 5쪽과 7쪽에 그려진 핑크색 의상을 입은 정정당당 피오나와 검은 의상을 입은 거대한 버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 아이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Read aloud **(소리 내어 읽기)**	- 마지막 장(24쪽에서 31쪽까지)을 한쪽씩 돌아가며 함께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After reading **(책을 읽고 나서)**	- 아이에게 두 쌍둥이 자매가 레슬링 경기에서 서로 어떤 역을 맡을지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공정했는지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 아이에게 이야기의 어느 부분이 가장 좋았고 싫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 아이와 쌍둥이의 이름('뼈를 으스러트리는 거대한 버다'나 '정정당당 피오나')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함께 못된 레슬러 혹은 착한 레슬링 선수에게 다른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보세요. ('주먹질의 팸', '물어뜯기의 브리짓', '친절한 카렌' 혹은 '미소의 샐리' 등)

Story Book (본문번역)	
p3	1. 쌍둥이 자매 버다와 피오나는 쌍둥이 자매였어요. 그들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 둘을 구별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버다는 자신의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했고 피오나는 자신의 머리를 금발로 염색했어요. 두 쌍둥이 자매는 한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금요일 저녁에 그들은 마을 회관에서 일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마을 회관 바깥의 팻말에는 '대 레슬링 경연대회'라고 쓰여 있었어요.
p4	심판은 밧줄을 비집고 링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별들의 대결을 위해 침묵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장실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심판은 흥분하며 이야기했어요. "링 안의 귀염둥이. 정정당당 피오나입니다!"
p5	관중으로부터 환호가 쏟아졌어요. 피오나는 핑크색 의상을 입고 홀에 등장했어요. 그녀의 금발 머리는 그녀 뒤로 뜨거운 바람을 내뿜었어요. 피오나는 한 번의 도약으로 밧줄을 뛰어넘어 링 안에 착지했어요. 그녀는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며 키스를 날려보냈어요. 관중은 앉아서 손뼉을 쳤어요. 그들은 피오나가 이기길 바랐어요.
p6	심판은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녀의 상대는……" 분장실 문이 쾅하고 열렸어요. 한쪽 문은 경첩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녀의 끔찍한 쌍둥이 자매. 뼈를 으스러트리는 거대한 버다입니다!" 버다는 검은 의상을 입고 홀에 등장했어요. 빨간 머리가 그녀 뒤로 흩날렸어요. 그녀는 링 안으로 한번에 뛰어들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주먹을 흔들었어요. 관중은 야유했어요. 그들은 버다가 지길 바랐어요.
p7	심판은 시계를 확인하려고 돌아섰어요. 버다는 피오나를 붙잡고 밧줄에 내동댕이쳤어요. 관중은 심판에게 소리쳤어요. 버다는 잽싸게 자신의 코너로 돌아갔어요. 심판이 돌아섰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버다가 소리쳤어요.
p8	경기는 시작되었어요. 피오나는 공중 드롭킥으로 다시 경기를 뒤집었어요. 관중은 일어서서 환호했어요. 버다는 피오나를 들어서 그녀의 머리 위로 빙빙 돌렸어요.

	관중은 야유했어요. 그렇게 경기는 5라운드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승자는 바로…… 정정당당 피오나!" 관중은 피오나에게 환호했어요. 그들은 버다에게 야유를 보냈어요.
p9	그날 밤 버다와 피오나는 집에 앉아서 코코아를 마셨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경기가 아주 잘 흘러간 것 같아." 피오나가 말했어요. "흠." 버다가 말했어요. "플라잉 테일 스핀을 당해서 화난 거야?" "아니." "2라운드 때 드롭킥 때문에?" "아니."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난 거야?"
p10	버다는 울기 시작했어요. "뭐가 문제야?" 피오나가 물었어요. "글쎄. 사람들은 항상 너만 응원하고 나에겐 항상 야유를 보내잖아." 버다는 훌쩍이며 말했어요. "그거야 나는 정정당당 피오나이고 너는 뼈를 으스러트리는 거대한 버다이기 때문이지." "우리 둘이 바뀔 순 없을까?" 너는 '공포의 피오나'가 되고 나는 '너그러운 버다'가 될 수 있잖아."
p11	"어리석은 소리 마. 게다가 넌 악역의 소질이 있잖아." 피오나가 말했어요. "네가 나한테 착한 역할을 하는 법을 알려줘. 그리고 나는 너한테 나쁜 역할을 하는 법을 알려줄게." 버다는 말했어요. "안돼! 내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피오나가 말했어요.
p12	2. 버다의 반격 다음 금요일 아침에 아침 식사를 마치고 쌍둥이 자매는 거실로 향했어요. 그들은 테이블과 의자들을 방 한쪽에 쌓아뒀어요. 그들은 텔레비전과 금붕어 어항과 책들을 부엌으로 옮겼어요. 방이 완전히 깨끗해지자, 피오나는 말했어요. "준비됐지?" "준비됐어." 버다는 말했어요.
p13	그다음 쌍둥이 자매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버다는 피오나를 방에 내던졌어요. 피오나는 완벽하게 옆으로 재주를 넘었고 사뿐히 두 발로 착지했어요. 쌍둥이 자매들은 금요일 밤 경기 전에 항상 연습하곤 했어요. 이 둘은 모두 아주 숙련된 레슬링 선수였어요. 이들은 확실히 서로 다치게 하지 않고 동작을 해내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p14	그리고 연습을 끝마치면, 집을 정리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쌍둥이 자매는 요리하기를 좋아했으나 집안일은 싫어했어요. 그들은 누가 방을 치울지 확인하기 위해 동전 하나를 던졌어요. "앞쪽." 버다가 말했어요. "뒤쪽이야. 내가 이겼어." 피오나가 말했어요. 그렇게 버다는 모든 물건을 부엌에서 거실로 옮겨야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테이블과 의자를 다시 방 가운데로 돌려놓아야 했어요. 그동안 피오나는 점심을 준비했지요.
p15	점심을 먹고 버다는 살금살금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궜어요. 버다는 피오나의 금발 염색약으로 머리를 헹궜어요. 그녀는 거울을 보고 웃었어요. 그녀의 머리는 이제 금발이에요, 피오나의 머리처럼 말이에요. 그녀는 남은 금발 염색약을 하수구에 버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병에 빨간 염색약을 조금 부어놨어요.
p16	피오나는 문을 두드렸어요. "빨리 끝내." 그녀가 불렀어요. "거의 다했어." 버다가 답했어요. "조깅하러 가기 전에 머리를 염색해야 해." 피오나가 말했어요. 버다는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수건을 머리에 둘러썼어요.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화장실을 깨끗이 해놨어." 버다가 말했어요.
p17	"시간을 봐. 나 분명히 늦을 거야." 피오나가 말했어요. 피오나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녀는 머리에 염색약을 끼얹었어요. 그녀는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거울을 보지 못했어요. "기분 좋게 달리고 오렴." 버다가 말했어요.
p18	피오나는 길을 달렸어요. 그녀는 공원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피오나는 벽에 앉아 있는 새끼 고양이를 보았어요. "안녕? 새끼 고양이야." 그녀는 팔을 뻗어 고양이를 쓰다듬으려 했어요. 그 고양이는 나무로 뛰어 올라갔어요. 한 경찰관 아저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당신 그 고양이를 겁주는 것 봤어요. 어쩌면 이렇게 불쾌한 일이." "나는 그저 쓰다듬으려고만 했어요." 피오나는 중얼거렸어요.
p19	그녀는 운동장으로 뛰어갔어요. 몇몇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놀고 있었어요. "밀어줄까?" 그녀는 아이들을 불렀어요. 아이들은 피오나를 한번 보고는 그네에서 뛰어내려 도망갔어요. 공원 관리인이 뛰어왔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당신은 지금 그 아이들을 쫓아내고 있다고요. 가서 당신 덩치랑 비슷한 사람이나 쫓으세요."

	피오나는 공원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p20	피오나는 슈퍼마켓 바깥에서 잠시 쉬려고 멈췄어요. 한 할머니가 카트를 문쪽으로 밀고 있었어요. 피오나는 도와주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먼저 가세요." 그녀는 말했어요. "이건 속임수야. 분명히 내 앞에서 문을 닫아 버릴 거야." 할머니는 말했어요. 관리인이 도착했어요. "우리 고객을 겁먹게 하지마.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가버려."
p21	피오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버다는 정원에 있었어요. "너 머리에 무슨 짓을 한 거야?" 피오나가 소리쳤어요. "마음에 들어?" 버다가 물었어요. "금발이잖아. 그건 내 머리 색이야." 피오나가 말했어요.
p22	"정말 그럴까?" 버다가 말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거울을 꺼냈어요. 버다는 피오나에게 거울을 들어 보였어요. "내 머리!" 피오나는 절규했어요. "빨간색이잖아! 하지만 이건 네 머리 색인데." "나도 알아." 버다는 말했어요. "모두가 나를 너라고 생각할 거야." 피오나가 말했어요. "맞아." 버다가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p23	"머리 염색을 다시 해야겠어." 피오나가 말했어요. "그럴 수 없을 거야." 버다가 말했어요. "왜?" 피오나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네 염색약을 하수구에 버렸거든." "하지만 우리는 이제 10분 안에 마을 회관에 가야 해. 어쩌면 좋지?"
p24	3. 앞쪽, 혹은 뒤쪽? 마을 회관은 큰 경기를 보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심판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신사 숙녀 여러분. 홍팀에 정정당당 피오나." 버다는 핑크색 의상을 입고 금발 머리를 휘날리며 앞으로 달려 나왔고 링으로 뛰어들었어요.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모두가 환호했어요.
p25	"그리고 청팀엔 링 위의 괴수, 뼈를 으스러트리는 거대한 버다!" 피오나는 후끈거리는 빨간 머리와 함께 검은 의상을 차려입고 링 위로 돌진했어요. 그녀는 버다를 향해 주먹을 흔들었어요. 관중은 그녀가 주먹을 그들에게 흔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야유를 보냈어요.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피오나와 버다는 서로 어깨를 붙들었어요.
p26	"악역이 되어보니 어때?" 버다가 속삭였어요.

	"최악이야. 모두가 내가 지길 원해." 피오나가 말했어요. "이제 내 기분을 알겠지." 버다는 속삭였어요. "그렇지. 너를 내 어깨너머로 던져 버릴 거야." 그리고 그건 피오나가 과거에 했던 그대로였어요. 관중은 환호했어요. 버다는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어요.
p27	"그리고 승자는 정정당당 피오나." 금발 머리에 핑크색 옷차림을 한 버다는 관중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어요. 관중이 집에 돌아가고 두 자매는 분장실에 앉았어요. "왜 네가 그렇게 만족해 보이는지 모르겠어." 피오나가 말했어요. "내가 이겼으니까." 버다가 말했어요. "그러나 너는 이긴 게 아니야. 심판은 승자는 정정당당 피오나라고 이야기했어. 그건 나야." 피오나가 말했어요. "아 그래?" 버다는 말했어요.
p28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피오나는 말했어요. 한 남자가 아주 큰 꽃다발을 들고 수줍어하며 분장실로 들어왔어요. "피오나, 당신을 위해 꽃을 조금 가져왔어요." "어머, 친절하셔라." 피오나는 미소로 답했어요. 그 남자는 피오나를 지나쳐서 꽃다발을 버다에게 건네 주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레슬링 선수라고요." 그는 말했어요.
p29	그리고 그는 얼굴이 잔뜩 빨개져서 방을 뛰쳐나갔어요. "이봐. 그 꽃은 나에게 주는 거라고 했어." 피오나는 말했어요. "오 아냐. 그는 내게 꽃을 줬어." 버다는 말했어요. "정말이지, 이건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일이야." 피오나는 쏘아붙였어요.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우리 둘을 행복하게 할 묘안이 떠올랐어." 버다는 말했어요. "어디 들어보자." 피오나는 말했어요.
p30	"매주 금요일마다 동전을 던져서 누가 빨간색으로 머리를 염색할지 누가 금발로 염색할지를 정하는 거야." 버다는 말했어요. "안돼. 동의할 수 없어." 피오나는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계속 금발 머리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리 모두 정정당당 피오나가 될 수 있어. 아무도 두 피오나가 맞붙는 것을 보러 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돈을 못 벌겠지. 그리고 집을 팔아야 하고. 그리고……" 버다는 얘기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동의해." 피오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p31	그렇게 매주 금요일에 두 자매는 거실을 청소하고 동작들을 연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전을 던져서 누가 집안일을 맡을지를 정하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둘은 동전을 다시 던져서 머리카락색을 정해요.

	때때로 버다가 금발을 하고 피오나가 빨간 머리를 해요. 때때로 피오나가 금발을 하고 버다가 빨간 머리를 해요. 그리고 보러 오는 관중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about the author 글쓴이의 말	나는 1950년에 런던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램즈게이트의 해변에 살고 있어요. 나는 저녁에 이야기나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아주 조용하게 이것들을 해요. 그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재즈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요. 우리 가족은 내가 아주 바보 같은 짓을 두 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매일 밤 정원에 나가서 개구리나 도롱뇽이나 고슴도치 등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질링엄 축구팀을 응원하는 것이에요.